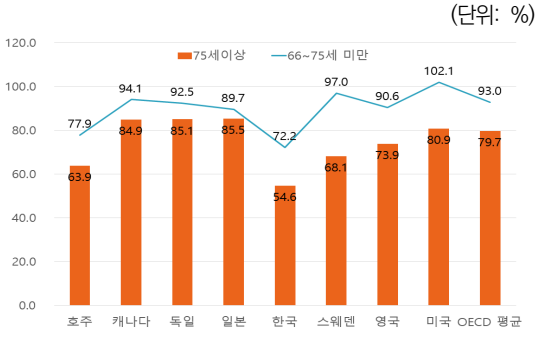
Ⅰ 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역할

1. 고령사회 진입

○ 베이비부머 은퇴 및 저소득 고령층 확대로 고령자의 소득지원 강화가 요구되고, 만성질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증진·질병예방이 중요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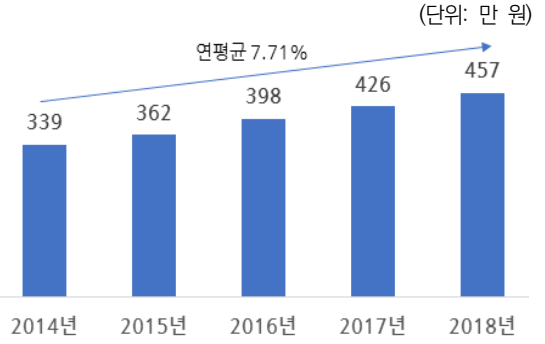
- 베이비부머(1955~1963년생)[1]의 은퇴가 2021년부터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, 베이비부머 임금노동자[2]의 과반수가 2024년 이내로 은퇴할 예정임[3]
- 고령자의 낮은 고용률과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내 분배 기능 약화로 저소득계층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임[4]
- 만성질환은 생활환경이나 일상적인 건강·위생관리와 관련된 위험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한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임
  -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의 3배 수준으로 평생 의료비 절반 이상을 노후에 지출함

〈그림 Ⅰ-1〉 고령자의 소득 비중 국제비교



주: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 대비 고령자 소득 비율임
자료: OECD(2019)

〈그림 Ⅰ-2〉 고령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


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2019)

1) 베이비부머의 고용률은 2019년 8월 기준 67%임
2)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약 60%임
3) 윤정혜(2019), 『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재취업 현황 분석』
4) 소득 하위 1분위(20%)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03년 13.7%에서 2019년 2분기 43.4%로 확대됨

2. 위험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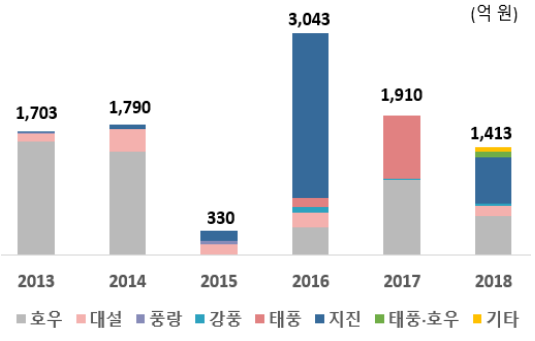
○ (이동위험 다변화) 플랫폼 기반의 배달업종 확산과 새로운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사고발생이 증가함

-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접근성 및 보장공백이 사회적 이슈가 됨
-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)[5]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증함
  -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105% 증가함

○ (재난위험 확대) 기후변화, 국가 간 이동 증가, 도시화, 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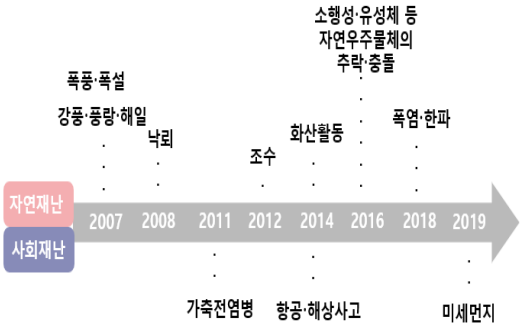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6,366억 원이며[6]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자연재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미세먼지, 가축 전염병·글로벌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확대로 재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음
  - 특히, 국가 간 이동 증가,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글로벌 감염병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함

〈그림 Ⅰ-3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 현황



자료: 행정안전부 재난연감

〈그림 Ⅰ-4〉 우리나라 재난범위 확대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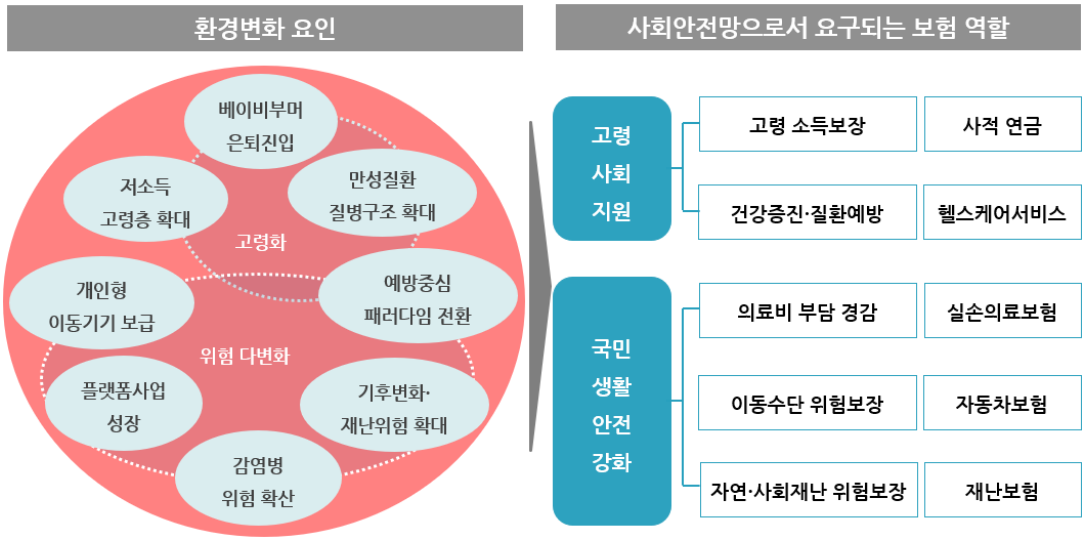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(2019)

5) 1인 또는 2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데, 일반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

6) 피해액은 공공시설, 주택 및 건물, 농경지, 비닐하우스, 축사, 어망 및 어구, 비닐하우스, 농작물, 가축, 수산증·양식 등을 포함함

3.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

○ 보험산업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, 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·건강 지원 및 국민 실생활 안전을 위한 역할 강화가 요구됨

-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후 IRP 도입(2012년), 가입범위 확대(2017)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왔으며, 개인연금(세제적격 1994년 도입)과 함께 사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해 옴
-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이 60%대 초반에 정체된 가운데,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0% 이상 가입한 국민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 성장해 옴
-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옴
  - 현재 대인배상(1억 5천만 원) 및 대물배상(2천만 원) 의무가입 보상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·물적사고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됨
- 보험산업은 정부의 자연재난 복구지원제도를 정책성보험제도로 포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고,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영을 통해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해 옴

〈그림 Ⅰ-5〉 환경변화 요인과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